

산재일기



노회찬의원 4주기 추모연극

산재일기

2022.7.4(월)-7.10(일)
전태일기념관 2층 올림터
평일 저녁 7시 / 토,일 오후 4시

작·연출 이철 조연출 김민희
출연 정혜지, 양정윤

인사말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삶도 죽음도 투명한 사람들의 <산재일기>

한 해 동안 일을 하다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2천명이 넘는다고 한다.

TV뉴스는 미국 초등학교 총기사고 상황은 속보 처리하며 실시간으로 중계 보도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보도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가 보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의 숫자가 한해 몇 명이나 될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작년 1월 입법화되어 유예기간 1년을 거쳐 금년 1월 27일 발효되었다. 당초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기업살인법” 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법제화를 요구했었는데, 법명에서 “기업”이 빠진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 노회찬 의원이 2017년 4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최초로 입법발의하며 밝힌 입법취지는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얻는 이익보다, 재해를 일으켰을 때 받는 불이익이 적다면, 기업의 철저한 안전관리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2년 적용 유예했다. 사람의 생명이 이윤보다 중요하다는 상식은 또다시 배반당했다.

노동자들은 자본의 이윤을 위해 올해도, 내년에도 수 천 명씩 죽어 나갈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사업장,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이다. 살았을 때도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림자 노동을 하는 투명인간들인데, 죽음도 보이지 않는다.

6411 노동자들은 삶은 물론 죽음까지도 투명하다. 그들의 죽음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재일기>를 쓴다. 6411 노동자들의 삶의 무게를

우리 사회가 감당할 때까지 우리의 <산재일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인사말

이철
작·연출



“이주 예전에 인천에 갔다가 한 조합원이 해준 얘기였는데, 저녁에 식사자리에서요, 그분이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주신 거예요. 공단에 작은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서 죽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끼여 죽은 노동자의 어머니가 급히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사장한테 미안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때문에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여기 생산시설이 멈추게 돼가지고 미안하다고, ‘옛날엔 그랬다. 노동자가 죽으면 가족들이.’ 그래도 지금 많이 달라진 거라고, 지금 많이 좋아진 거라고 했던 게 생각이 가끔 나요.”

인터뷰 작업을 이끌어 준 전수경 선생에게 들은 이야기다.

이야기의 배경이 3~40년 전이라고 했으니 이 일은 1980년대 혹은 1990년대의 일일 것이다.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가 많다. 문득 저 어머니가 생각나는 것이다. 불행 또는 불운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던 사람. 자식이 일하다 겪은 사고마저 자신 탓으로 여기던 사람. 이 이야기는 그 시절 내 어머니를 말하는 것만 같다.

산업재해의 원인을 사고 피해자의 부주의에서 찾던 세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이다. 2002년 노동건강연대가 산업재해를 기업범죄로 다루면서부터다. 이 단체는 이듬해 해외의 기업살인법(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사례를 소개하면서 '산재 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라는 구호의 캠페인을 전개한다. '기업살인! 나는 이 말을 2021년 2월 처음 들었다. 이 말은 산업재해에 대한 내 이해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크고 작은 사고가 집중되는 일.

이런 현상에 한국 사회가 눈을 뜬 건 2010년대의 일이다. 오래전부터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일은 끊이지 않았지만 원하청이라는 구조 속에서 사고의 원인을 주목한 건 이 시기부터다. 2013년에는 '산업안전보건 법칙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기업살인처벌법률안' 등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2017년 고 노회찬 의원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한다. 이때의 일을 기억하는 한 분에게서 나는 기자 한 명 없던 기자회견장 풍경의 쓸쓸함을 들었다.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 언론은 추락, 끼임 등 산업재해 사례를 소개하는 데 바빴다. 기업은 사고로 인한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느라 분주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로펌에 일이 늘었다는 풍문이 돌았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인 손익찬 변호사로부터 제도와 법이 산업재해를 다루는 방식을 들었다. 그는 김용균 재단의 김미숙 어머니를 만나볼 것을 권했다. 산재 사망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가 기업의 책임을 묻는 싸움에 나서는 건 극히 드문 일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 나선 여러 사람을 만났다. 녹취록을 정리하며 이들 각자의 싸움과 그것이 쌓인 역사를 가늠해보곤 했다. 자식 잃은 일을 자기 탓으로 삼는 어머니의 마음은 가슴 아프다. 책임을 묻는 싸움에 나선 어머니의 마음도 가슴 아프다. 산업재해라는 사건에 대응하는 여러 개인의 싸움은 보상과 처벌이라는 영역에서의 싸움에서 끝나지 않았다. 사고라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평생 견디고 버터내는 일로 싸움은 계속된다. 사고 이후를 겪어내는 삶 말이다.

인사말

김민희
조연출



산재일기, 산업재해, 중대재해, 산재자활공동체, 민주노총...

모르는 단어와 줄임말로 가득한 대본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산재에 무지한 내가 과연 이 작품을 만날 수는 있을까? 산재를 기록하고 연극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 어떤 일이 되어야하는가?

공연을 연습하면서 인물의 말을 이해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들의 언어를 추적해가면서 그들의 입장과 상황을 상상해봅니다. 이것은 연극을 위한 연습이지만, 역할을 만나는 연습을 하며 어찌면 그것은 나의 일, 어찌면 극 속 인물이 '나' 일 수 있다는 감각을 불러옵니다.

'어찌면 내 일 일수도 있다'는 김벼리의 말처럼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이 연극을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산재일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습을 합니다.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관객 여러분께서 7월의 극장에서 <산재일기>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연습을 합니다!

시놉시스

2,080

122,713

연극은 두 개의 숫자로부터 시작된다.

〈2,080〉과 〈122,713〉. 2021년 산업재해 사망자수 〈2,080〉과 재해자수 〈122,713〉.

이 연극은 산업재해를 다룬다. 통계는 산업재해를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다루는 방식이다. 여기엔 사고를 겪어낸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워져 있다. 2,080개의 절망과 122,713개의 아픔은 저마다 사연을 지닌 이야기일 테지만 우리는 그들이 겪어낸 사건을 듣지 못한다.

화자(작가)는 산업재해를 주제로 15명의 인물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이의 말이 쌓일수록 산업재해는 사회적 현상(통계)이라는 외피를 벗고, 사람 하나하나가 겪어낸 사건으로 드러난다. 저마다 제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하나가 겪어낸 이야기로서의 사건 말이다. 이 연극은 몸을 잃은 사건이 몸으로 겪어내는 사건임을 증명한다.



배우

정혜지

〈집집:하우스소나타〉

〈이게 마지막이야〉

〈변주곡:상호작용에 대한 고찰〉

〈진료는 의사에게〉

〈소설가 구보 씨와 경성사람들〉

〈마당 씨의 식탁〉

〈리어왕〉

〈메밀꽃 필 무렵〉의 다수



배우

양정윤

- 〈늑대와 함께 춤을〉
- 〈신바람난삼대〉
- 〈공주(孔主)들2020〉
- 〈혼티사색-아낌없이 주는 나무〉
- 〈망각댄스_4.16편 서울망각투어버스〉
- 〈브레인 킷틀〉
- 〈공주(孔主)들〉
- 〈리얼 발레그림 블루 류(流)〉
- 〈파란나라〉
- 〈노란봉투〉 외 다수



언론이 주목한 <산재일기>

이겨보지 못한 이들의 말이 노동자들 다치고 죽은 이야기 다룬
연극무대로 연극 <산재일기> 7월 공연 앞둔 연습 현장을 가다

흔히 말하기를 사람으로부터 배운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어떤 부분만 선택한다. 이 짧은 연재글도 그러하다. '내 곁에 산재'라는 따뜻한 연재명을 달았지만, 연재에 등장한 이들의 사연은 깊은 만남 속에 길어진 다정한 이야기는 되지 못한다. 나와 인터뷰 대상자 사이에는 짧은 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합의가 있다. 경제적으로 묻고 경제적으로 답한다. 자신의 노동 이야기 가운데 선택된 어떤 단면이 문자화돼 읽히는 일은 당혹스러울 수 있다.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할 수 있는데도 '내 곁에 산재'에 등장했던 이들은 동료 노동자들과 공동체를 위해 경험을 나눠줬다.

'노회찬재단'에서 산업재해를 소재로 연극을 제작하고 싶다고 나에게 연락했을 때도 비웃었다. 노동자들이 다치고 숨지는 일에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문화예술에서도 이를 다루는 것은 좋은 일이다. 노회찬재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해왔기에 신뢰도 있다. 그러나 극본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을 만나는 일은 조심스럽게 생각할 일이다. 노회찬재단 요청으로 이 산재 연극의 극본을 준비하는 이철 작가를 만난 것은 2021년 2월이었다. 이 작가와 나는 같이 노동자들을 만나기로 했다.

다치고 죽어도 119 구급차는 안 와

평평한 길에 튀어나온 돌부리처럼 느닷없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을 모두가 겪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만 보이던 삶이 어떤 사건을 만나면 사회적 의미가 새로 직조되기도 한다. 개인과 사회가 만나는 지점에서 자신에게 말이 생겨나는 것을 알게 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공동체가 이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는 일은 대체로 일어나지 않는다.

개인의 경험이 사회적 이유와 뗄 수 없이 연결돼 있다 해도 모든 이가 사회를 향해 말하는 건 아니다. 자신의 드라마를 들려주는 수고는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때로 변화를 촉진하지만 주인공은 대체로 지는 싸움을 한 경우가 많다. 이미 이긴 이들은 싸움을 선택하게 하는 현실에 놓이지 않기 때문이다. 극본을 집필할 작가와 함께 노동자를 만나는 일은 이겨보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를 수집하는 일이기도 했다.

2021년 여름, 코로나19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승객이 줄어 항공료가 기차표와 큰 차이가 없던 때 토요일의 울산공항은 오가는 사람은 적고 공기만 후텁지근했다. 산재 연극의 극본을 쓸 작가가 단 한 명만 만나야 한다면 망설이지 않고 연락할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그는 약속시간보다 3시간이나 늦었다. 채소배달 트럭을 모는데 식당 주인이 거제도까지 갈 일을 시키는 바람에 다니오는 길이라 했다. 여름날의 트럭 운전엔 지친 그와 늦은 점심을 먹었다.

대기업의 조선소. 이곳에서 바다로 추락하고 도장(도료를 칠함)하다 가스에 질식해 죽기도 하는, 죽은 이들은 원청 대기업 직원이 아닌 하청업체 노동자. 이곳에서 죽은 이들이 해마다 두 자릿수가 됐지만 신문 사회면 단신으로도 잘 올라오지 않을 만큼 언론도 관심이 없던 날들이 있었다.

그 사람을 만나 산재는 누구에게라도 우연히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려 찾아오는, 편협하고 불평등한 사건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가 의도한 게 아니었다. 조선소 일이라면 자신감도 있고 일머리도 있어서 크게 신경 쓸 일만 생기지 않으면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었던 하청업체의 관리자는 다치고 죽는 일이 생길 때마다 참지 못하고 사고를 쳤다. 조선소 안에서 다친 이들은 트럭 짐칸에 실려 병원으로 가고는 했다.

구급차가 오는 일은 없었다. 119에 사고를 알리는 것은 회사에 산재 사고가 일어났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현장에서 그는 사람이 죽으면 작업을 중단하고 장례를 치렀고, 용접하다 숨졌는데 경찰이 자살로 발표한 사고를 내려놓지 못하고 유족을 설득해 자살이 아닌 산재사고였음을 재판에서 밝혀내기도 했다. 하청업체를 차릴 수도 있었을 사람이 하청 노동조합의 지부장이 되기에 이르렀다. 회사 정문 앞에 분향소를 차린 적도 있다. 말이 분향소지 초라한 천막이었다. 원청 노동조합은 천막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낮은 목소리에 실린 예술의 힘

그는 이 말을 할 때 처음으로 목소리가 침울해졌다. 원청 노동조합이 하청노동자를 외면해온 시간을 흐름대로 설명해줬다. 이 시간의 끝에는 부딪치기만 하다 떨어져 나온 자신이 있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말하는 사람은 담담한데 듣는 이는 감정적 동요가 일어날 때가 많았다.

서울 광화문의 기자회견장이든 종로 골목의 해장국집이든 목소리 낮추는 걸 본 적이 없던 '경상도 아저씨'인 그가 연극을 만들겠다고 찾아온 작가 앞에서 차분하게 지나온 행로를 들려주는 모습은 새로웠다. 이것이 예술의 힘인가.

이철 작가는 그의 가족에 대해 물었다. 아버지의 거친 하청 노동조합 활동 뒤에는 여리고 복잡한 10대를 보낸 두 아들이 있었다. 작가가 아들의 연락처를 물으며 만나보고 싶다고 했을 때 "에들하고 친해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그를 보면서는 당황했다. 노동운동으로만 만나는 이들은 아들의 연락처를 묻지 않는다.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말랑하게 한다.

서울 구로동으로 가서 손가락이 잘린 노동자들이 꾸린 자활공동체를 소개하면서는 역사로 쓰이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를 작가가 건져 올릴길 바랐다. '노동자의 단결된 힘' 같은 것은 무용한 고어가 됐고 디지털이 혁명하는 시대가 됐지만 노동하는 사람들은 모여야 한다고 아직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의 말이 빠지면 연극은 심심해질 것이다.

서울 구로공단 인근의 대형 병원이 손가락 집합 수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졌다는 텔레비전 뉴스가 있었다. 누군가 예씨 찍고 인터뷰도 돼 있다. 그러나 1980년대, 90년대 금속을 깎고 플라스틱 바구니를 찍어내다가 손가락을, 손목을 잃은 노동자들은 어디에 있을까, 왜 보이지 않을까.

경기도 어느 도시에서 만난 청년들은 다치고 아픈 이야기의 뒤편, 가려졌던 풍경을 보게 해줬다. 산재 발생 이유를 위협해서, 안전하지 않아서라고 설명하는 것은 동어반복이다. 위협에는 여러 갈래가 있다. 도시의 '학교 밖 학교'로 모여든 청년들은 빈곤, 힘겨운 가족관계, 학력 중단 같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 환경을 상수로 두고 노동한다. 쉬지 않고 배달노동을 하는데도 오토바이 렌탈비가 줄어들지 않는다.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계산법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급한 마음에 교통사고도 찾다. 다리가 아파 치료받아야 하는데 빛이 되어가는 오토바이 렌탈비는 자신을 들볼 힘도 앓아간다.

‘견뎌냈다’는 자부심

가족과 친구와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면서 밥을 먹어본 이들은 그것이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큰 자산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사무보조로 입사한 회사에서 업무시간보다 밥 먹는 시간이 더 힘들다는 청년의 이야기를 알기 전까지는, “이게 다 산재 같아요.” 학교 밖 학교 청년들의 노동을 전하며 교사가 말한다.

울산에서 구로에서 경기도에서 만난 이들에 더해, 평택항에서 숨진 스물한 살 이선호의 장례를 치르던 친구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이 떠난 자리에서 싸움을 계속하는 선배 노동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엄마가 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가르는 처벌하는 산재와 처벌하지 않는 산재를 둘러싼 쟁투 까지 듣고 또 들었다.

이렇게 만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인 극본이 나오고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로 했다고 노회찬재단에서 2022년 5월 초 알려졌다. 7월4~10일, 전태일기념관 공연장 ‘올림픽’로 극장도 정했다. 연출까지 맡은 이철 작가와 수개월 만에 마주 앉았다. 제본된 극본을 건네받았다. <산재일기>. 제목이 좋다. 소박하고 평이해 보여서 마음이 놓였다. 힘이 들어간 제목이면 부담스럽다.

“어떤 말을 골라 열개를 만들어야 할까, 말을 살피는 과정이 길었어요.” 이철 작가는 20명 가까운 사람을 만났고, 극본에는 15명이 등장한다. “놀라운 경험을 했죠. 나왔다 흩어지는 말 중에 산재를 겪은 이들이 의미를 두고 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작가는 그저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던 말에서 삶이 거기 있구나 생각했다. “산재를 사회에서 다루는 방식이 있잖아요. 것처럼 사회구조를 설명하진 않아요. 상징적인 사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상황에 맞선 사람들, 맞서는 일 자체로 성취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였죠.”

구로에서 만난 자활공동체 노동자 두 사람이 보여준 ‘견뎌냈다’는 자부심은 작가의 마음에도 전해졌다. “사고 후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의 삶이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본 적이 없어요.”

몰랐던 사람들이 관객이 되길

김민희 조연출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다. “김용균과 제가 동갑이에요. 대학에서 연출을 공부할 때 자연스럽게 산재를 주제로 삼아본 적이 많아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연 연습에서 모든 ‘허드렛일’을 담당할 김민희 조연출은 함께한다는 기대가 가득하다.

코로나19 유행 한가운데 연극도 중단됐고 랜선 공연이란 형식으로 관객을 만났지만 연극은 이미지가 아니라 몸이 움직이는 예술이다.

정혜지, 양정윤 두 배우는 15명의 인물로부터 길어 올린 말에 숨을 실어 관객에게 전달한다. “끊임없이 다쳤다는 뉴스가 나오지만 속상해하고 또 사라져요.” 양정윤 배우에게 산재는 그랬다. “나처럼 알지 못했던 사람, 나처럼 대략만 아는 사람, 이런 분들이 관객이 되면 좋겠어요. 관심을 두는 것, 산재를 겪고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소중한 삶에 대해서요.”

정혜지 배우는 산재가 ‘달걀로 바위 치기’처럼 느껴졌다. “조선소에서 싸우는 인물이 인상적이었어요. 왜 힘들어하지? 무엇 때문에 힘들지? 보는 사람이 돌아보고 생각해보면서 저마다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정혜지, 양정윤 배우가 그리는 <산재일기>는 무겁지 않게, 관객마다 다양하게 받아들여기가 권장되는 열린 기록이 되려나 보다.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노회찬 재단 × <한겨레21> 공동기획 '내 곁에 산재'

일터에서 다치고 아픈 이들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는 칼럼입니다.



노회찬 의원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발의 2017년 4월 12일

노회찬 의원은 “현대 사회에서 재해 사고는 성과를 위해 사람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기업의 조직 문화와 제도가 낳은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가 일어나도 경영책임자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기업의 조직구조 때문에, 경영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라며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경영자와 기업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벌칙이 완화되면 통과가 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17년 8월 22일 CBS라디오 인터뷰

노회찬 의원이 입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는 동안, 2017년 8월 20일 창원 진해의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도장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8월 22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뒤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노회찬은 "집권 여당이 조속히 통과하는 데 협조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제안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벌칙이 센 이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제가 낸 법대로 하면 벌칙이 너무 세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벌칙이 완화되면 통과가 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트위터 속 발언들



노회찬 ✓

@hcroh

...

삼성반도체 근무중 백혈병으로 숨진 박지연씨 빈소에 왔습니다
다 최소23명이 백혈병에 걸리고 9명이 숨졌는데 세상은 말이 없습니다
반도체웨이퍼제조과정의 방사능물질에 대해 영업 비밀이라고 공개거부하고 있고 정부는 산업재해 아니라고 합니다

오후 7:42 · 2010년 3월 31일 · 파랑새



노회찬 ✓

@hcroh

...

하청노동자 4명이 숨진 진해 STX조선 사고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과수 발표 사인은 폭발로 인한 질식사입니다. 경비절감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줄이고 안전메뉴얼대로 감독하지 않은 원청회사의 책임이 큼니다.



오후 6:35 · 2017년 8월 22일 · Twitter for iPad

“제7공화국 헌법에는 살인(방조)로 처벌할 것”

2007년 8월 14일, 연합뉴스

노회찬 제17대 대통령선거 민주노동당 경선후보는 “하루 평균 7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그동안 제6공화국 세력은 성장과 노동자들의 사망을 맞바꿨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자본의 살인이며, 국가의 살인방조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7공화국 헌법에 사업주의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노동자 사망을 살인(방조)으로 규정하고,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보장함으로써 건강권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재일기〉는 오늘도 쓰여집니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지난 5월 28일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김군의 6주기였습니다. 그가 미처 먹지 못한 컵라면 사진에 마음 아파하면서 함께 추모하고 연대한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로부터 6년여의 시간, 노동자들은 여전히 다치고 죽어 갑니다.

대통령이 바뀌었고 새 정부가 들어선 2022년, 노동자들의 여름은 더 덥고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가 불러온, 해마다 최악을 기록한다는 폭염 때문만은 아닙니다. 새 정부는 노동 시간은 기업이 편한 데로 늘려주고, 임금은 최저에서 더 낮출 방법을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0만명의 국민이 청원하여 만들어졌지만 기업들이 갖은 기술을 동원하여 법의 힘을 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안전담당 이사를 두면 대표이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법의 시행령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사망은 불운이나 우연이아니라 기업의 경영행위로 일어난 범죄로 보고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신입니다. 노동자의 사망에 개인이 부주의해서 라고 훈계하며 책임도 죄책감도 갖지 않았던 기업들은 이 법이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뀐 정부 아래서 기업들은 맘껏 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도 폭염은 일터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아스팔트가 일터인 라이더노동자, 택배 배송, 물류센터, 가스검침,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달구어진 도시의 한 가운데서 폭염과 싸워야 하고, 남쪽 바닷가의 조선소와 전국의 건설, 플랜트 노동자들도 드넓은 작업장의 한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열기와 씨름할 것입니다.

지난봄부터 전국의 공단에서 일하는 220만 명의 노동자들은 휴게실을 만들자고 합니다. 그동안 휴게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휴게실 설치에 법이 없었다고 해요. 휴게실이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았기에 설치되지 않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얼얼했습니다. 휴게실이 의무가 아니라서 설치를 안했다고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노회찬재단에서 산재를 소재로 연극을 만들고 싶다고 연락해 왔을 때 어떤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굳어진 감각을 깨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을 소중히 여겨온 노회찬재단을 신뢰하면서 이야기들을 함께 모았습니다.

〈산재일기〉가 연극이 되어 무대에 오르는 지금도, 막이 내린 후에도 일하는 사람들의 〈산재일기〉는 쓰이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기록이 되고 예술이 될 수 있다니 더 소중합니다.

관객이 되어 공감하고 시민으로서 연대하면서 〈산재일기〉를 함께 써 나가요!

노회찬 재단 × 〈한겨레21〉 공동기획

내 곁에 산재

연재기사 보기

2020년에만 노동자 10만8천여 명이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렸습니다. 산업재해(산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다치고 아픈 이들은 우리 곁에 항상 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노회찬재단은 한겨레21과 공동기획으로 산재를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를 '내 곁에 산재'라는 이름을 붙여 격주로 전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기획 · 제작	(재)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 이사장 조돈문 이사 김수정 나순자 문종찬 민정연 신장식 장석 정광필 조승수 주은경 감사 임영탁 최정식 사무총장 김형탁 사무처 박규님 박미리 이강준 이성재 이종민 조동진 유족 김지선 노회건 노영란
작 · 연출	이철
출연	양정운 정혜지
조연출	김민희
음악	이재
조명	유혜연
사진 · 디자인	이성재(노회찬재단)



노회찬재단

(0414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101동 1501호
후원문의 02-713-0831 홈페이지 <http://hcroh.org/>

노회찬재단은 여러분과 함께
노동과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